

3차시-'엄마' 자리 되찾기 - “나는 놀 줄 아는 엄마야”

- 지금 부터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10가지를 적어보세요.
- 3분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 다 적으셨나요? 지금 적으신 것을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만족을 할까요?
- 만족을 한다면 얼마나 만족을 할까요?
-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식들의 생각이 맞나요?
-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 여러분이 할애하지 못한 시간, 자신이 그 나이 때 채우지 못하고 하고 싶었던 그 어떤 것,
- 남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최상의 것,
- 보통은 그러한 것들을 적어놓으시더군요.
-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 그렇다고 보고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 자식들은 무엇을 해줘도 모자릅니다.
-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준다 해도 결국엔 모자를 것입니다.
- 좋은 학용품, 좋은 옷, 최고의 식사 등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아이들은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 같습니다.
-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허전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 어느 정도의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주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그렇다면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해주어도 모자른 이유는 여러분이 모자른 마음을 가지고 주어서 그렇습니다.

옛말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고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요즘엔 고기를 잡을 일이 별로 없으니 고기는 말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전쟁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셨고 전후 50년 안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키우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모델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분들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들이 옳은 삶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해서 그 방법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직업은 점점 다양해 지고 정보는 그 때보다 몇 백배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세계는 한 동네 처럼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세상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또 다른 변화가 온다면 그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앞서 공부한 사실대로 본인이 즐거운 것과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변치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인생에 책임을 지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보세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이들은 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생활고에 지치고 인생이 힘들다 하고 부부가 서로 싸우는 모습에 일상이 무료하다는

혹은 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그러니 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남과 비교해 질책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30초만 자신을 돌아보지요.

그리고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리저리 그려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삶을 자신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옷, 좋은 환경은 잠시 지나가는 경험에 다름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좋은 것은 바로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바라 볼 수 있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과 건강한 모습이지요. 힘든 모습에 지친모습에 아이들은

같이 지쳐가고 그들의 미래도 그렇게 그려갑니다. 나이들면 힘드는구나. 지치는구나. 어른들은

그렇구나. 그렇게 각인되어 가고 인생을 그렇게 그려갑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부모님의 단점을 기억하는 내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세요.

잠시 부모님의 단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장점도 적어보세요.

자신의 단점과 장점도 적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경험했으며 그것으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차리셨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저명인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이셨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유가 있으셨다.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전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서 월스미스는 아들과 같이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역경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이혼을 경험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불행하다면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월스미스는 아들에게 절대로 우울하거나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를 제시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어 아이가 무섭지 않게 합니다.

실제 자신은 화장실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화장실 문이 열릴까 발로 버티고 눈물을 흘립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뿐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고통이 이보다 덜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든 사실에 집중하고 어렵다는 것에만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면 그것이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긍정을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고 여러분 만의 권리입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과 의지는 신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신은 애초에 이것을 앗아가지도 않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경험입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초보니까요.

선택한 자신의 삶을 그려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사진을 모아서 붙이셔도 좋습니다.

선택하세요. 행복하기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행복한 모습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 사회의 선생님 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